



과학기술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단결된 힘으로 여는 내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과기연구주간소식



37호
2025. 3.10.(월)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

인사말

- 김종훈 총무기획차장 -



안녕하세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3월 4일부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사무처에서 총무기획차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종훈입니다.

자주, 민주, 평등의 민주노동 운동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과학기술연구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대표하는 이곳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공공, 과학, 기술, 연구, 지원기관의 올바른 위상 확립과 자주자립,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번역 기고 - ‘과학자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에 저항하는 과학자들

**‘과학 지키기(Stand Up for Science)’ 집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연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고 도전할 것을 표명했다.**

[출처] “‘Scientists will not be silenced’: thousands protest
Trump research cuts”, Nature, 2025년 3월 7일,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5-00704-0>

[옮긴이] '네이처'(Nature) 저널은 186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과학저널이다. 격주로 발행된다.

<번역> 장영배 교육선전위원



[사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과학 지키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과학을 옹호하는
피켓들(‘과학이 생명을 구한다.’, ‘우리는 과학을 신뢰한다.’)을 들고 있다. 과학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상징하듯 아래위가 뒤바뀐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 인력을 축소하고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지출을 삭감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오늘 수 천 명의 과학기술연구
자와 과학 지지자들이 미국 전역과 유럽의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집회를 개최
하였다.

많은 곳에서 집회 분위기는 반항적이고 도전적이었다. 이 집회들에서는 “과학
자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보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원
하는가? 동료평가(Peer Review)! 언제 그것을 원하는가? 지금 당장!” 등의
외침이 있었다.

자메이카의 싱어송라이터 밥 말리를 인용하면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전 위원장 러시 홀트 주니어는 뉴저지 주 트렌튼에서 열린 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일어나 맞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치매, 만성통증 등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하버드의과대학의 심리학자 아나-마리아 브란차누는 “상황이 정말로 나빠지기 전에 이것을 저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애틀 집회에 참석했던 워싱턴대학의 세계보건의료 메트릭스 연구자 에이브러햄 플렉스먼은 지난달에는 “누군가 무엇인가 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죠. 우리가 나서서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로스코프 생물학연구소의 생물물리학자 마리 월은 자신이 참가한 집회에 관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 블루스카이(BlueSky)에 소식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우리 동료들과 연대하여, 오늘 프랑스 전역의 연구자들과 시민들은 공공재와 공익으로서 과학과 지식을 위하여 저항 집회를 합니다.”



[사진] 미국 과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하는 연구자들과 시민들
'가장 심각한 재난적 상황'

‘과학 지키기’ 집회는 미국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포위 공격에 맞선 대응이다. 2025년 1월 취임한 이후, 트럼프와 그의 각료들은 원자력 안전, 조류독감 감시, 극단적 날씨 예측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미국 과학기구들에서 일하는 수 천 명을 해고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다시 고용하려 하였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을 포함한 과학연구비 지원기구들의 연구비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생물의학연구소들에 지급하는 ‘오버헤드 비용’도 삭감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 시도를 저지하였다. 이번 주에 ‘네이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생물의학연구에 대한 세계 최대의 공공자금 지원기구인 NIH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포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주제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연구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들에 충격을 받았고 왜 사람들이 ‘과학 지키기’에 눈에 띄게 나서지 않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하던 5명의 미국 과학자들은 오늘의 집회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재난적 상황이에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에머리대학의 심리학자 콜레트 델라월러는 말한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책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되돌아갈 과학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 조직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때의 정책들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조직했던 2017년의 ‘과학을 위한 국제행진’과 같은 과거의 저항 집회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 즉, 집회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미국 플로리다 주 게인즈빌에 있는 플로리다대학에서 여성 건강문제를 연구하며 ‘과학 지키기’ 집회 조직가의 한 명인 심리학자 사만다 골드스타인은 말한다. 집회 조직가들은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우리의 정책 목표와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잃어버린 세대

오늘 있었던 많은 집회에서 발언자들과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래의 과학과 과학자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낸시 캔워셔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모두를 해고했다가 필요할 때 그들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세대의 과학자들을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공중보건 연구자이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부처장을 역임했던 아툴 가완디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과학자들이 훌륭한 직무에서 해고당하여 자신의 경력이 담긴 상자들을 들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보건프로그램과 재난구조에 자금을 지원하는 USAID의 노동자 수 천 명을 해고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가 “급진 좌파 정신이상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며, “엄청난 사기와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타깃이 된 것은 “과학이 권력이 원하는 답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가완디는 말했다.

과학자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과학자인데 엄청 열 받았어요.” 미국 뉴저지 주 로렌스 타운십에 있는 라이더대학의 행동 생태학자 캐럴리 캐프리는 트렌튼 집회의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말한다. “저는 경악했고 실망했으며 욕지기날 정도예요. 정말 최악이에요”

이런 집회들이 과학자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발레리 H.는 작물학을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다. 미국 국립 해양기상청과 여타의 정부기구에서 일어난 최근의 대량해고는 발레리의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수 백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링케딘 (Linkedin)을 통해 알고 있어요.” 덴버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은 와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과거의 교훈

오늘의 집회들이 미국 과학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2017년의 ‘과학을 위한 국제행진’을 조직하는데 참여했던, 아칸서스주립대학의 신장(腎臟)생리학자 조나단 버먼은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결국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과학 지키기’ 집회 조직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오늘의 집회들을 이끄는 데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욕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슈만은 아무런 파괴나 방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로는 정책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한 집회는 어떤 운동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특히 이미 그러한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그러나 “아무런 방해나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이와 같은 큰 집회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저항 집회들이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행동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고 슈만은 말한다.



[사진] 뉴욕시에서 개최된 ‘과학 지키기’ 집회에서 과학자들과 과학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다양성이 과학을 위대하게 만든다,’ ‘여성은 과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한다.’라는 피켓이 보인다.

‘과학 지키기’ 집회 조직가들은 이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의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의 생물학자이며 ‘과학 지키기’ 집회의 핵심 조직가인 엠마 커트니에 따르면, 향후 계획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과학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 조직가 팀은 과학자들이 과학옹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에요.” 커트니는 말한다.

워싱턴 DC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NIH의 국립중개과학진흥센터(NCATS)의 박사 후 연구원이며 NIH 포닥.대학원생 노조의 부위원장인 헤일리 캐털린은 집회가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열정에 차있으며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 힘을 믿습니다.”

오늘 집회의 핵심 조직가이며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생물정보공학 연구자인 J. P. 플로레스는 ‘네이처’에 이렇게 말했다. “3월 7일은 시작이에요. 저는 3월 7일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진] 저항 소자 모형을 들고 저항(resistance)을 표현 중인 시위 참가자들

행사와 집회



식품연지부 간담회 (3. 5.)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단체교섭(3. 6.)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여성의 날 행사 (3. 7.)



주요 언론 보도

[2025년 충북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 청주일보](#)

[과기연구노조 "출연연 운영규정 환영...2년마다 기관평가는 우려" - 연합뉴스](#)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주요일정

| | |
|---------|---|
| 03월 10일 | 10:00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사용자 면담 18:00 국방과학연구소지부 임원 이취임식 |
| 03월 11일 | 14:00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단체교섭 상견례 14:00 2025년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
| 03월 12일 | 10:00 식품연구원지부 정상화 대책회의 10:00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국회 토론회 17:00 ETRI지부 본원 보안 조함원 간담회 |
| 03월 13일 | 13:00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인사위원회 14:00 과학기술본부 대표자회의 16:00 활동가 기초과정 수료식 |
| 03월 14일 | 14:00 교육선전위원회 회의 |

공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인사 발령 공고

노동조합 규약 제47조에 의거하여
인사 발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명 | 인사발령 사항 | 발령 일자 |
|-----|------------|-----------|
| 김종훈 | 총 무기 획 차 장 | 2025.3.1. |

2025년 3월 4일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 연 택

